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오늘 복음의 '회개', 곧 '메타노이아(μετάνοια)는 '너머, 후에'를 뜻하는 '메타(meta)'와 '생각·이해, 판단'을 뜻하는 '노이아(noia)'가 만나 탄생한 말입니다. 이미 굳어진 생각의 벽을 넘어, 그 뒤편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는 일, 그 방향 전환을 우리는 회개라 부릅니다.

♣ 회의 / 모임

- 청년 회의 : 1월 4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사목 회의 : 1월 11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6.00€ • 교무금 310.00€

전례 성가

- 입당 : 239 (거룩한 어머니)
- 봉헌 : 258 (구세주의 어머니여)
-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 : 희망의 순례자들 (성가대 특송)

전례 봉사

이번 미사(12월 31일)	다음 주일(1월 4일)
1독서 : 이수혁 시몬	1독서: 이민찬 비오
2독서 : 김남옥 아녜스	2독서: 윤지영 베레나
복 사: 변가인 헬레나 / 정아인 레나	복 사: 안태리 소화테레사 / 안태오 마테오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2월 31일

(백)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1독서 (민수기 6,22-27)

-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24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25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26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4,4-7)

- 형제 여러분, 4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5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7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16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17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18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희년을 맞이한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희망의 순례자인 저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기후 위기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 세상을 돌아보시어, 형제애와 연대로 공동선을 이루고자 서로 협력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게 하시고, 배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인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